



2010년 1억불의 꿈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이감열
02) 864-4420 www.kemti.org

필자가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지도 어언 1년을 넘기고 있다.

공직초기에 QC업무를 추진한 것이 인연이 되어, 공직마감에 다시 QC의 본질인 시험검사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처음과 끝을 같이 하게 되는 운명적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경제개발과 수출 drive가 추진되던 60년대초 설립된 이후, 80, 90년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섬유, 완구 등 생활용품산업의 정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험검사기관으로 그 위상이 악화되었다. 60,70년대의 화려한(?)명성은 역사속의 추억으로만 남기고 생존과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은 노쇠화된 시설과 시험장비, 취약한 수익구조, 저수준의 경제적보수와 더불어,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특히 IMF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직관리와 운영과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쇄신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올해 1월에 그 명칭을 변경했다. 외형상으로는 '용품'이란 단어가 '환경'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변신을 향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21세기가 환경의 시대인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명칭에 걸맞게 연구원 사옥도 내년에는 옮길 계획이다. 신 사옥은 그동안 재정여건으로 불가능하게 미루어왔던 우리 연구원의 오랜 염원이고 숙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업무추진을 위한 공간확보와 2010년의 Vision실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오는 2006년까지 세계시험검사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국내 시험기관들은 시험분석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기술축적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시험검사기관들과 경쟁해야 할 시기이다. 1천억불의 시장가운데 최소 5%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면 상품수출 못지않은 서비스수출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연구원도 2010년 1억불 시장확보를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책 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일류화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시험기술능력의 뒷받침은 필수조건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개발여부는 일개 기업이 가질 수 없는 첨단장비와 기술인력을 통한 인프라적 시험평가능력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 시험연구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10대 우수브랜드 개발전략과 국가산업 기반적 측면에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험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가 기술개발연구, 신제품개발 등의 기술축적, 둘째, 환경관련시험, 재질, 성능 등의 객관적 이화학시험기술, 관능검사 능력향상을 통한 저렴한 양질의 시험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Testing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우수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비교검사 관능검사부분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뒤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연구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시험검사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앞차고, 내실있는 민간종합 Testing Lab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지정시험기관들은 제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제품을 해외에서 만들더라도 시험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격경쟁력 면에서 국내 기관들이 유럽이나 일본 등에 앞서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고품질 제품들에 대한 시험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험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중국

등지에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세계적인 다국적 시험기관인 프랑스 BV(미국의 MTL 통합)와 해외유명 buyer에 수출되는 MTL 마크의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직접 해야 할 시험 및 품질보증을 적은 비용으로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제품의 정보가 해외 시험분석기관에 의해 흘러나가는 것도 방지해준다. 시험분석기관은 국내산업의 방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추격해오는 중국제품에 우리나라 제품이 국제경쟁력 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2만불시대 진입을 위해서도 국가전략적으로 세계일류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고품질 제품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객지향적 사고, 선진적 생산시스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등등...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시험분석능력이다. 고품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시험검사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의 생산과정은 수많은 시험과 검사의 연속이다. 부품설계가 끝난 뒤에 하는 원형 시험을 비롯해 배출가스, 내구력, 탑승자 안전, 충돌, 약천후 등 각종 시험이 있다. 이런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만이 고객의 손에 넘어 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면 그건 그 기능에 대한 시험검사능력까지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시험검사능력은 이전의 규격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점차 새로운 품질과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대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일류 기업들도 저마다의 자체 시험검사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종

품질검사와 시험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심사 기관 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Q마크 (Quality 인증)의 국내 최초 도입한 노하우가 있다. KS인증, ISO인증을 포함하여 품질보증SYS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보증인증 절차나 과정에서의 품질인증 분야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것이며 질 좋은 품질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우수업체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품질이 나쁜 제품은 시장에서 과감히 배제 하고, 'GQ'나 'HS'마크와 같이 시장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나 인지도를 관리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내 어느 기준보다도 표준화는 물론 업그레이드 된 국제적 품질인증기준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더욱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품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분야는 물론 신물질(의료용구) 독성평가센터 설치, 식품위생, 신뢰성평가사업 등 국내유일의 기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험연구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새 천년을 맞아 삶의 질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 적 흐름에 발맞춰 소비자의 새로운 품질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식품, 의료용구, 화장품, GMO, GLP, 먹는 물 등 새로운 분야의 시험검사설비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장비의 국제화, 현대화, 첨단화를 통한 생활환경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민간종합 Testing Lab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